

唐太宗의 詠物詩 研究*

김승삼**

<目 次>

1. 序言
2. 詠物詩의 發展概況
3. 太宗詠物詩 分類와 表現方式
 - 1) 詠物詩分類
 - 2) 表現方式
 - (1) 形似的 詠物
 - (2) 神似的 詠物
4. 太宗詠物詩의 風格
 - (1) 清綺
 - (2) 豪放
5. 結言

1. 序言

唐太宗(599년생, 재위 626~649년)李世民은 唐나라 제2의 황제이다. 태종은 사서들 사이에서 대단히 합리적인 지성을 갖춘 걸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국인들이 볼 때에 태종은 군사 전략보다는 학식과 행정능력으로 더 큰 존경을 받았다. 뛰어난 학자이자 시인이며 서예가였던 태종은 유능한 대신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당 초기 치세에는 검소한 생활과 이상적인 유교통치의 모범으로 칭송을 받았다.¹⁾ 그의 치세는 '貞觀之治'라 칭송받았고 후세 제왕의 모범이 되었다.²⁾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태종인데 문학적으로

* 본 논문은 2011년도 안동대학교 ACE사업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안동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鄒元初 《중국역대황제》 박이정, 95쪽.

2) 우한위음 《제왕》 살림출판, 258쪽 참조.

는 그를 궁체시를 썼을 뿐이라고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³⁾

궁체시는 왕궁, 귀족들의 생활의 소산이고 또 그들의 사치스러운 유락생활의 결과라고 흔히 말하고 있다. 宋 計有功의 《唐詩紀事》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황제는 궁體詩를 지었는데 虞世南으로 하여금 화답하게 했다. 世南曰 : 임금님께서 정성스럽게 지었으나 體는 우아하고 바르지 않네. 위에서 좋아하면, 아래에서는 반드시 더욱 심해지니, 신하는 이 시가 전하여 천하에 풍미할까봐 두려워 감히 받들어 전할 수 없구나”⁴⁾

이처럼 唐 태종의 시가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면보다는⁵⁾ 부정적인 면이 많았다.

태종이 적지않은 시를 남겼는데 모두 궁체시 일까? 이러한 의문에서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全唐詩》에 수록된 태종시는 87首이다. 이 87首의 체제는 七言古詩와 七言律詩가 각각 一首씩 있고 나머지 85首가 모두 五言詩로서, 五言古詩, 五言律詩, 五言絶句로 구성 되어 있다.

태종의 시를 내용별로 보면 詠懷詩, 邊塞詩, 送別詩, 詠物詩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邊塞詩와 送別詩는 2~3首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 중 詠懷詩가 20여수이고 詠物詩가 60여수이다. 그러니 太宗의 詩는 대부분 詠物詩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고에서는 詠物詩를 중심으로 태종시를 살펴보려고 한다.

지금까지 연구된 太宗詩에 대한 연구물은 그다지 많지 않다. 중국역사에서 직위

3) 劉大杰의 《中國文學發展史》 40쪽에서는 “당 태종과 그의 신하들이 똑같이 이 궁체시 속에 깊이 빠졌다” 遊 國恩의 《中國文學史》 2책 23쪽에서도 “唐太宗 본인은 齊梁文風도 좋아하여 스스로 앞장서서 음탕하고 사치스러운 궁체시를 지었다”

4) “帝嘗作宮體詩, 使虞世南賡和. 世南曰: 聖作誠工, 然體非雅正, 上有所好, 下必有甚: 臣恐此詩一傳, 天下風靡, 不敢奉詔.” 宋 計有功 《唐詩紀事》 木鐸出版社, 6쪽.

5) 唐代 盧照隣, 明代 胡震亨은 《全唐詩》에서 太宗에 대한 다른 견해를 밝혔다. 《全唐詩》 第詩一冊, 卷一: “詩筆草隸, 卓越前古. 至於天文秀發, 沈麗高朗, 有唐三百年風雅之盛. 帝實有以啓之焉.

가 극히 특수한 사람, 즉 황제에 대해 쓴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특히 봉건사회에서 황제는 옛 부터 하나님에 부여한 권력이라는 생각이 중국인들에게 있었기에 감히 황제는 논할수도, 황제의 시를 감상할 수도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최근에 들어와서야 몇 몇편의 연구물이 보일 뿐이다.

중국에서 간행된 논문으로는 鄒紀孟의 〈論唐太宗的社會政治詩〉 《中國青年政治學院學報》第6期, 1987, 李曉青의 〈論唐太宗的政治詠懷詩〉 《邢臺學院學報》第21卷第一期, 2006, 高青의 〈論唐太宗李世民的詩歌〉 《山西大學學報》第4期, 1996, 한국에서 간행된 논문으로는 김경식의 〈唐太宗의 황권강화과정〉 순천대학교 2007, 김명희 〈唐太宗과 貞觀의 治〉 전남사학회, 2002, 萬紅의 〈唐太宗이세민이 이끄는 예술재능의 연구〉 부산외국어대, 2008. 등이 있는데, 대 부분이 당태종과 정치, 예술에 대한 것이다. 태종의 문학적인 논문이나 영물시에 대한 논문은 1편도 보이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태종의 87수 시에서 우선 영물시를 뽑아, 분류해보고 영물시의 표현, 풍격이 어떠한가를 살펴 태종시의 문학적 가치를 재 조명 해 보려고 한다.

2. 詠物詩의 發展概況

우선 영물시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영물시의 정의, 개념, 연원등을 살펴본다. 영물시의 개념과 사물의 범주설정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시도되어 왔고, 연구되어 왔다.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자들의 연구물을 참조하여 영물시의 범주를 설정하였다.

詠物詩의 정의를 말한다면 글자의 뜻대로 사물을 노래한 시이다.⁶⁾

중국에서 “詠物”이란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國語 楚語上》에서이다.

6) 陳新璋 〈唐宋詠物詩論〉, 《華南師範大學學報》1985, 第4期71쪽 “詠物詩是以物爲吟詠對象的詩歌”, 劉國盈·廖仲安 《中國古典文學辭典》, 北京出版社, 1989, 934쪽 “詠物詩是傳以自然界或現實生活中的某些物作爲描寫對象的詩歌”, 於志鵬 〈中國古代詠物詩概念界說〉 《濟南大學學報》第14卷, 第2期, 2004, 50쪽 “詠物詩應是以萬事萬物爲歌詠對象的詩歌”, 彭小廬 〈中唐後期詠物詩研究〉, 江西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7, 2쪽 “詠物詩顧名思義它是以物作爲歌詠對象”

“문장은 物을 읊음으로서 나아가게 된다.”⁷⁾

여기에서 말한 ‘詠物’은 ‘詠物詩’라는 장르를 말한 것은 아니고 文章에 사물의 내용을 담아 교화한다는 뜻의 실용적인 의미를 지닌다. ‘詠物詩’라는 장르로서 ‘詠物’이란 용어가 쓰인 것은 그 보다 훨씬 뒤인 六朝 梁에 이르러서이다.⁸⁾ 鍾嶸의 《詩品》下 許瑤之 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許瑤之는 短句 詠物詩에 뛰어나다”⁹⁾

이 말은 《玉臺新詠》에 나오는 許瑤之의 〈詠柑榴枕〉을 두고 한 말이다. 윗글에서 증영은 許瑤之를 評하면서 ‘詠物詩’를 시문학의 한 장르로 인정하고 있으니, 이는 문헌상 詠物詩가 등장한 최초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다.¹⁰⁾

앞에서 詠物詩를 字意에 따라 사물을 노래한 시라고 설명했는데 ‘物’, 즉 사물의 범위는 대단히 넓다. 사실, 중국시에서 사물이 들어가지 않은 시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 金萬源은 그의 논문 〈中國詠物詩試論〉에서 “詠物詩는 敘事, 抒情, 寫景이 위주가 아닌 단일 개체물로 구성된 평면, 공간이 아닌 點的인 단일 개체물을 읊은 것으로 그 제재는 ‘窮物之情’, ‘盡物之態’에 충실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긴 작품을 일컫는 것이다.”¹¹⁾ 라고 洪順隆의 논문을 인용하여 말 하고 있다.¹²⁾ 본 고 에서도 이 범주 안에서 영물시를 논할 것이다.

다음은 詠物詩의 역사를 논해보자.

일반적으로 영물시의 기원을 《詩經》에 두는게 통설로 되었다. 清代 康熙帝 45년에 편찬된 詠物詩選集인 《佩文齋詠物詩選》의 서문에서도 확인된다.

7) 《國語·楚語上》：“文詠物以行之”

8) 金萬源, 〈中國詠物詩試論〉《中國文學》제 16집, 한국중국어문학회, 1988년 50쪽 참조.

9) “許長於短句詠物” 鍾嶸《詩品》下 許瑤之 條

10) 洪順隆《六朝詩論》文津出版社, 1985. 5쪽 참조.

11) 金萬源, 위의 논문, 54쪽 참조.

12) 洪順隆《六朝詩論》7쪽: “.....一篇之中, 主旨在吟詠物的個體(包括自然界和人造的), 也即作者因感於物, 而力求工切地「體物」、「狀物」以「窮物之情」、「盡物之態」, 且出之以詩體的, 才是詠物詩”

“벌레·물고기·초목과 같은 미물로써도 천지 만물의 이치를 발휘하며, 六義와 四始의 道가 이들로 말미암아 밝아진다. 그러므로 詩라는 것은 그 지극함을 다 하면 천지에 통하고 만물을 분류하기에 충분하지만 이 역시 벌레·물고기·초목과 같은 미물을 넘어서지 않으니 시에서 사물을 읊는 것은 三百篇으로부터 이미 그러한 연원이 있었다고 하겠다. 공자는 “시가 가까이 부모를 섬기는 일에서부터 멀리 임금에 섬기는 일이 들어 있음은 물론 새나 짐승과 초목의 이름도 알게 해 준다.”라고 했다. 아버지와 임금을 섬기는 충효는 큰 절목이고 鳥獸, 草木은 지극히 작은 것인데도 공자는 이 둘을 함께 들어 지극히 말한 것이다. 13)”

그러나, 《詩經》에 수록된 작품들은 사물을 본격적으로 읊지는 않았다. 초목이나 조수의 “物”을 이용하여 시인의 정감을 시에 표현했을 뿐이다. 그 物은 시를 짓는데 주요소가 아니라 부가적 요소로 사용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영물시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詠物詩’라는 장르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胡應麟은 “詠物은 六朝로부터 일어났으며, 唐人이 沿襲했다”고 했다.¹⁴⁾ 그래서 본격적인 영물시는 육조시대에 쓰여지기 시작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육조시대에는 사물이 시를 구성하는 부가적인 요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요소가 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의미하는 영물시는 이처럼 사물이 시의 주요소가 되어 주제를 설정하는 역할을 하는 작품을 의미한다.

육조시대는 유미적인 기풍이 성행한 시기이다. 玄言, 遊仙, 田園, 山水詩의 시풍이 성행하면서 文人들은 산수, 전원 뿐만 아니라 자연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南齊에 이르기까지 자연적인 山水를 바라보다가 정원을 건축하게 되고 정원내의 산수를 바라보면서 자연을 감상하는 대상이 일상 생활의 주변의 것으로 즉, 詠物의 제재가 되는 草木, 鳥獸나, 생활속의 器物로 사용 되었다.¹⁵⁾ 또한 南齊때에는

13) “.....凡以蟲魚草木之微, 發揮天地萬物之理, 而六義四始之道, 由是以明焉. 故夫詩者, 極其至, 足以通天地類萬物, 而不越乎蟲魚草木之微. 詩之詠物, 自三百篇而已然矣. 孔子曰, 邇之事父, 遠之事君, 多識於鳥獸草木之名. 夫事父事君忠孝, 大節也, 鳥獸草木, 至微也, 吾夫子並舉而極言之....” 《佩文齋詠物詩選》序. 金載旭〈牧隱李穡의 詠物詩研究〉高大博士學位論文, 2009, 再引.

14) 明代 胡應麟 《詩藪》內篇云: “詠物起於六朝, 唐人沿之” 洪順隆, 《六朝詩論》, 文津出版社1985, 8쪽 再引

15) 洪順隆의 위의 책 11쪽.

영물시를 지어 교유하려는 공동창작의 풍토가 조성되었는데 이는 王融, 謝朓, 沈約 등을 대표로 한 ‘竟陵八友’의 시인들이 주축이 되었다. 이 영향으로 영물시가 시의 한 장르로 자리를 굳히게 된다.¹⁶⁾ 南齊 永明 시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티주의 시풍이 梁·陳에 이르러 최고조에 이르면서 ‘齊梁體’, ‘宮體詩’란 명칭이 나오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竟陵八友는 사대부들 문인인데 비해, 梁代 문학활동의 주체는 簡文帝(蕭綱), 元帝(蕭繹)와 같은 황제였고 당연히 황제가 시를 읊으면 宮廷臣僚들이 호응하게 된다. 그래서 이 당시 영물시는 대부분 簡文帝, 元帝, 宣帝등의 황제와 庾肩吾, 吳均, 劉孝綽, 劉孝威등 신료들의 손에 의해 지어진 것이다. 이들의 시풍은 ‘綺麗’, ‘華美’한 궁체시의 경향이 드러난다. 이처럼 梁, 陳代에는 사치스런 궁정생활을 배경으로 황제를 중심으로 한 궁정시인들에 의해 영물시의 저작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은 영물시가 ‘形似’, ‘體物’의 사실적 묘사를 위주로 한 유티주의 경향으로 나아가는데 일조하기도 하였다.

영물시가 하나의 장르로 독립하면서부터 여러 작가들은 영물의 방법, 또는 영물의 창작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清代 俞琰은 《歷代詠物詩選》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시란 意志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실은 物에서 感興을 받아 지어진다. 詩가 物에서 感興을 받는 것이므로 物을 體現하는 일은 工巧해야만 하고, 物을 그려내는 일은 절실 해야만 한다. 이에 ‘詠物’이라는 한 詩體가 있게 되어 物의 情趣를 다 그려내고 物의 상태를 다 묘사하는 것이다.”¹⁷⁾

또,

“영물시는 사물 그 자체를 노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물의 吟詠을 통하여 시인의 어떠한 감흥을 표현한 것이며 작가의 어떠한 이상을 기탁함과 동시에 사물에게 심미가치를 부여한 것이다”¹⁸⁾

16) 洪順隆의 위 의 책 163-164쪽 참조.

17) 俞琰 《歷代詠物詩選》序, 臺北, 廣文書局, 1968, 4쪽. “詩也者, 發於志而實感於物者也. 詩感於物而其體物者, 不可以不工. 狀物者, 不可以不切. 於是詠物一體, 以窮物之情, 盡物之態.”

18) 育松 《詠物詩的興盛及其價值》《廣西師範大學學報》1991, 第2期, 26쪽: “詠物詩不僅是詠物本身, 而且通過物體的吟詠, 抒發詩人的某種情懷, 寄託作者的某種理想, 並給物以某種審美評價”

위의 말들을 정리하자면 詠物詩는 物의 情과 態를 표현한 것이고, 物에게 작가의 이상을 기탁하고 심미가치를 부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영물시의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清代 吳景旭은 《歷代詩話》에서

“영물시는 요컨대 사물에 기탁하여 뜻을 펼치는 것인데 요점은 작품 중 두 구절은 모양을 읊고 실물을 그대로 읊기되 교묘하게 꾸미는 것을 극히 꺼린다는 점이다. 제 1연은 제목을 그대로 설명하고, 사물의 출처를 명백하게 표현해야 한다. 제2연은 사물의 모양을 읊는다. 제3연은 사물의 쓰임을 읊는데 뜻을 설명하기도 하고 議論하기도 하며, 人事를 설명하거나, 用事を 하기도 하고, 다른 사물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다. 제4연은 제목 이외의 것에 나아가 새로운 뜻을 내기도 하고 본래의 의도에 따라 끝맺기도 한다.¹⁹⁾”

윗글에서 말하는 것은 영물시는 주로 사물을 읊지만 단순히 사물을 묘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사물을 통해 작가의 의도가 전달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聯을 구분하면서 정형시의 정형을 보여주고 있지만 반드시 영물시가 여기에 나타난 패턴에 들어맞아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宋, 齊, 梁, 陳의 六朝시대에 완전한 시의 한 장르로 정착된 詠物詩가 唐代에 이르러 더욱 공고해진다.²⁰⁾ 王夫之는 《薑齋詩話》에서 말하고 있다.

“영물시는 제, 양때부터 비로소 많이 지어졌다.....성당 이후에야 비로소 물에 의탁하여 감정을 전하는 작품이 생겼다.”²¹⁾

이 말로 唐 이전까지의 영물시는 形似, 體物의 형식에 치우쳤다면 唐 이후에 가

19) 吳景旭 《歷代詩話》 卷67 : “詠物之詩, 要托物以伸意, 要二句, 詠狀寫生, 忌極雕巧, 第一聯, 須合直說題目, 明白物之出處方是. 第二聯, 合詠物之體, 第三聯, 合詠物之用, 或說意, 或議論, 或說人事, 或用事, 或將外物體證, 第四聯, 就題外生意, 或就本意結之.”

20) 俞球 《歷代詠物詩選》 序, 4쪽.

21) “詠物詩, 齊梁始多有之,至盛唐以後, 始有卽物達情之作.” 《清詩話》, 王夫之《薑齋詩話》, 明倫出版, 1971, 22쪽.

서야 작자의 감정에 기탁하여 ‘寄興’, ‘神似’의 영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해 보면, 六朝시대에 정착하여 더욱 발달된 영물시는 唐代에 들어 성숙해졌고, 육조의 山水詩, 宮體詩의 기풍을 완전히 벗어나 寄興, 託情한 내용이 되었다. 당 이후 영물시는 수량도 많아졌다. 수량에 대해서 陳聖萌의 〈唐人詠花詩研究〉에서 唐 이전에는 꽃을 읊은 시가 많지 않았는데 당대 300년 간 지어진 영화시 작품이 이전시대 600여 년간 지어진 작품 수에 비해 두 배 이상이라고 말했다.²²⁾ 꽃을 제재로 한 시가 이 정도니 다른 物을 읊은 영물시는 얼마나 많았을까 추측할 수 있다.²³⁾ 唐, 宋代를 거치면서 많은 영물시가 쏟아져 나오자 清代에는 康熙帝의 칙명으로 明代까지의 詠物詩를 망라한 《佩文齋詠物詩選》 64冊이 편찬되었고, 뒤이어 俞琰이 《歷代詠物詩選》을 편집하였다.

위의 《佩文齋詠物詩選》은 清代 康熙帝 45년에 勅命으로 편찬된 486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다. 내용은 上古시대부터 元·明에 이르기까지 14690수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영물에 대한 소재로는 天文, 歲時, 地物, 建物, 人事, 器物, 食物, 植物, 動物, 기타(香, 火, 煙, 煙火, 薪炭, 灰 등 총 486부로 세분하여 예시하였다.²⁴⁾ 뒤이어 나온 俞琰의 《詠物詩選》에서는 天, 歲時, 地, 山, 水, 居處, 寺觀, 人, 武, 樂, 巧藝, 器用, 雜玩, 玉帛, 冠服, 飲食, 果, 穀, 蔬, 花, 木, 草, 禽, 獸, 鱗介, 昆蟲部로 총 28항목을 나누어 각 부에 해당하는 사물을 열거하였다.²⁵⁾

이상의 자료를 통해 우리는 영물시의 소재가 되는 사물의 범위가 대단히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太宗詠物詩 분류와 표현방법

앞에서 언급한 바로 다시한번 영물시의 범위를 정리하자면 영물시는 하나의 개

22) 陳聖萌 〈唐人詠花詩研究〉, 政治大學碩士論文, 1982, 1-2쪽.

23) 胡大浚, 蘭甲云 〈唐代詠物詩發展之輪廓與軌迹〉의 논문은 唐代영물시 작품의 수량을 고찰하여 唐이전의 영물시가 불과 수백여편밖에 안 되었는데 唐代에는 6021수가 된다고 하였다.

24) 金萬源, 〈中國詠物詩論〉 《中國文學》 제 16집, 55-56쪽, 박재홍의 《佩文齋詠物詩選》, 2006, 6쪽 참조, 김재욱의 〈牧隱 李穡의 詠物詩研究〉 고대 박사학위논문, 2009년 11쪽.

25) 金萬源의 위의 논문 55-56쪽.

체물에 고정적인 시각을 두고 그 物의 전모를 시적 구조로써 美化하여 표현해 낸 장르이다. 제재인 개체물은 곧 詩題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장 우선적인 작업이 87首의 태종시에서 영물시를 선정하는 것일 것이다. 본 연구의 저본으로 삼은 陳貽愔 主編, 增訂註釋의 《全唐詩》에서 영물시를 뽑아 선별하였다. 그 결과 56題 58首를 뽑았다.

1) 詠物詩분류

번호	題目	詩體	題材
1	遼城望月	五古	달
2	春日登陝州城樓俯眺原野回丹碧綴烟霞密翠 斑紅芳菲花柳鳴目川岫聊以命篇	五古	들
3	登三臺言志	五古	궁전, 달
4	春日望海	五古	바다
5	臨洛水	五律	강물
6	望終南山	五律	산
7	元日	五古	정원
8	首春	五律	봄
9	初晴落景	五律	노을
10	初夏	五古	여름
11	度秋	五律	가을
12	儀鸞殿早秋	五律	가을
13	秋日卽目	五古	가을
14	山閣晚秋	五律	가을
15	喜雪	五古	눈
16	秋日效庾信體	五古	가을
17	詠風	五律	바람
18	詠雨	五律	비
19	詠雪	五律	눈
20	賦得夏首啓節	五古	여름
21	賦得白日半西山	五律	저녁
22	采芙蓉	五古	연잎
23	賦得櫻桃	五律	앵두

24	賦得李	五律	오얏나무
25	賦得浮橋	五律	다리
26	謁并州大興國寺詩	五古	절
27	詠興國寺佛殿前幡	五律	깃발
28	月晦	五律	봄
29	秋日翠微宮	五律	가을
30	初秋夜坐	五律	가을
31	秋日二首	五律	가을
32	冬日臨昆明池	五律	연못
33	望雪	五律	눈
34	守歲	五律	새해
35	除夜	五律	설날그믐날
36	詠雨	五律	비
37	賦得含峰雲	五律	구름
38	三層閣上置音聲	五律	악기
39	遠山澄碧霧	五律	안개
40	賦得花庭霧	五律	안개
41	春池柳	五律	수양버들
42	芳蘭	五律	난초
43	詠桃	五律	복숭아꽃
44	賦帘	五律	주렴
45	詠飲馬	五律	말
46	賦得殘菊	五律	국화
47	琵琶	五古	비파
48	于太原召侍臣賜宴守歲	五絶	봄
49	詠燭二首	五絶	촛불
50	詠弓	五絶	화살, 활
51	賦得早雁出雲鳴	五絶	기러기
52	賦得臨池柳	五絶	수양버들
53	賦得臨池竹	五絶	대나무
54	賦得弱柳鳴秋蟬	五絶	매미
55	探得李	五絶	오얏나무
56	詠小山	五絶	산

이상에서 분류한 내용을 《佩文齋詠物詩選》의 분류법대로 분석해 보면²⁶⁾

26) 康熙帝의 칙명으로 지어진 《佩文齋詠物詩選》과 俞琰이 편찬한 《歷代詠物詩選》은 사실 物의 종류와 나열 순서는 비슷하다. 다만 체제에 있어 필자가 보기에 《佩文齋詠物詩選》이 《歷

① 天象部

달, 바람, 비, 눈, 구름, 안개와 새벽, 밤, 추위, 더위등 하늘의 현상을 읊었다. 태종은 이 분야에 〈遼城望月〉, 〈詠風〉, 〈望雪〉, 〈喜雪〉, 〈詠雨〉, 〈詠雪〉, 〈賦得含峰雲〉, 〈賦得花庭霧〉 등 11首가 있다. 이중 한 수를 감상해 본다.

〈咏風〉

蕭條起關塞	바람이 관새에 불어와
搖颺下蓬瀛	하늘하늘 훑날리며 선경에 도착했네
拂林花亂彩	숲 속에도 꽃 무더기에도 스쳐 오색찬란하고
響谷鳥分聲	새는 기뻐하며 노래하니 산 계곡이 울리는구나
披云羅影散	아름다운 비단옷을 걸치니 그림자 대지위에 가득하고
泛水織文生	미풍은 물위에 불어와 부드럽고 온화한 물결무늬 짜 놓았네
勞歌大風曲	제왕이 〈大風歌〉를 부르니
威加四海清	우리나라에 위엄이 더해지고 온 세계 편안하네

바람을 읊은 시이다. 바람이 하늘하늘 미풍이 숲 속의 꽃무더기와 산 계곡에까지 불어와 평화롭게 펼쳐지는 모습에 제왕도 바람소리처럼 희망찬 大風歌를 읊조리고 있다.

② 歲時部: 봄, 여름, 가을, 겨울, 한식, 청명, 칠석, 새해, 선달 그믐날과 같은 세시에 대한 부류를 읊었다. 태종시에서 〈首春〉, 〈初夏〉, 〈秋日即目〉, 〈初晴落景〉, 〈初秋夜坐〉, 〈守歲〉 등 18수가 있다. 이중 한 수를 감상해 보자.

〈秋日二首〉중 第一首

菊散金風起²⁷⁾ 국화향기 가을바람 속에서 이리저리 풍기고

代詠物詩選》보다 좀 포괄적으로 묶여 있었다. 본고에서는 金萬源, 위의 논문 55쪽에서 10개 항목으로 분류정리한 것을 따랐다.

27) 金風은 西風이다. 옛날 五行으로 방위를 배치하는데 서쪽이 金에 속해 西風을 金風이라 불렀다.

荷疏玉露圓	드문드문 연잎위에 둥근 이슬방울 영롱하기가 옥과 같네
將秋數行雁	막 가을의 계절로 들어서니 몇 마리 기러기들 날아다니고
離夏几林蟬	숲 속엔 아직 매미 울고 있는데, 여름은 떠나가네
云凝愁半峯	산중턱 허리에 시름있는 구름이 엉겨있고
霞碎纈高天	높은 하늘 위에 흩어져 있는 구름과 노을은 아름다운 비단 같구나
還似成都望	마치 錦城 수도에서 멀리 바라보니
直見峨眉前	아름다운 아미산 보이는 것 같네

가을을 읊은 시이다. 가을바람, 국화향기, 기러기, 떠나가는 여름 속의 마지막 울고있는 매미, 높은 구름 모두 가을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기러기가 날아다니는 가을은 쓸쓸할 것 같은데 바뀌는 계절을 아쉬워 하는 매미의 울음은 여름을 아쉬워 하는 듯 하다.

③ 地物部: 산, 들, 바다, 강물, 정원, 연못 등,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소재로 삼았다. 태종시에서는 〈望終南山〉, 〈冬日臨昆明池〉, 〈詠小山〉, 〈臨洛水〉 등 7수가 있는데 그중 한 시를 보자.

〈咏小山〉

近谷交繁蕊	산계곡 가까운 곳 도처에 아름다운 꽃 볼 수 있고
遙峰對出蓮	아득히 멀리있는 산봉우리도 연꽃이 물에 나온듯
徑細无全磴	산길작아 층계없고
松小未含烟	소나무 어려 아직 구름 연기 만들 수 없네

그야말로 자그마한 산을 읊은 시이다. 자그마한 산 속에 있는 어린 소나무, 산계곡도처에 피어있는 꽃, 산봉우리가 마치 물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아름답다.

④ 建物部: 궁전, 다리, 비석, 절 등, 인간이 지은 것을 읊은 것으로 태종 시에서는 〈謁并州大興國寺詩〉, 〈賦得浮橋〉 등 2수가 있다.

〈賦得浮橋〉

岸曲非千里 꼬불꼬불한 강언덕 결코 긴 천리길은 아닌데
 橋斜昇七星²⁸⁾ 다리는 기울었으나 李氷이 만든 칠성교와는 다르네
 暫低逢輦度 황제 수레 통과할 때는 다리는 낮게 내려가고
 還高值浪惊 파도 칠 때는 다리 또한 따라서 높이높이 요동치네
 水搖文鷁動²⁹⁾ 파도 찰랑찰랑 부딪칠 때 뱃머리 익조 새긴 배도 움직이고
 艦轉錦花縈 밧줄 움직임이 마치 아름다운 꽃 맴도는듯
 遠近隨輪影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햇빛따라 변하고
 輕重應人行 무거워졌다 가벼워졌다 지나가는 사람따라 변화하네

다리를 읊은 시이다. 파도칠 때 높이 요동치는 다리, 밧줄 움직일 때 마다 아름답게 비치는 다리, 햇빛 따라 멀리 보이기도 하고 가까이 보이기도 하는 뜬 다리를 읊었다.

⑤ 器物部: 수레, 배, 화살등 兵器와, 필, 묵등 用器, 주렴, 장식품등 服飾類, 종, 고 등 樂器類등을 읊는다. 태종시에서는 〈賦帘〉 〈詠興國寺佛殿前幡〉, 〈詠弓〉, 〈琵琶〉 등 5수의 시가 있다.

〈詠興國寺佛殿前幡〉

拂霞疑電落 깃발은 구름과 노을 가볍게 스치는데 마치 번개 지나가듯
 騰虛狀寫虹 깃발은 공중에서 나부끼는데 마치 긴 무지개 스치는 것 처럼
 屈伸烟霧里 안개와 연기 뻗었다 둘둘 말기도 하고
 低舉白雲中 흰 구름 속에서 어느 땐 아래로 낮게 드리우고
 紛披乍依迥 어느 땐 높이 오르고
 掣曳或隨風 바람따라 왔다갔다
 念茲輕薄質 이 연약한 물체를 보면
 無翅強搖空 날개 없는데 오히려 공중에서 잘 난체 하며 흔들거리네

28) 七星은 북두칠성이다. 秦代李氷이 蜀강에 만든 7개의 다리인데 위에 7개의 별을 만들었다. 《華陽國志·蜀志》에 보인다.
 29) 옛날에 뱃머리에 풍파에 잘 견딘다는 익조(鷁鳥)의 모양을 새겨 놓았다. 그래서 배를 칭할 때 익(鷁) 혹은 鷁首라 했다.

깃발을 읊은 시이다. 깃발은 홍국사 불전 앞에서 나부끼고 있다. 마치 무지개처럼 안개 속에서 뻗었다 둘둘 말기도 하는 모습, 공중에서 연약한 몸으로 흔들거림이 마치 잘 난채 하는 것 인 양 보는 모습에 웃음이 절로 난다.

⑥ 植物部: 복숭아, 난초, 연잎, 앵두, 오얏나무, 대나무, 수양버들 등 수목과 화초, 약초, 곡물을 읊은 부류이다. 태종의 시에서는 〈探得李〉, 〈賦得臨池柳〉, 〈賦得臨池竹〉, 〈賦得殘菊〉, 〈詠桃〉, 〈芳蘭〉, 〈春池柳〉, 〈賦得李〉, 〈賦得櫻桃〉, 〈采芙蓉〉 등 10수가 있다. 그 중 한 수를 보자.

〈春池柳〉

年柳變池台	세월의 변화 따라 못 주변 누각의 버드나무도 변하고
隋堤曲直回 ³⁰⁾	수양제 제방따라 구불구불, 언덕의 수영버들도 구불구불 변했네
逐浪絲陰去	파도따라 수양버들 실 가지 왔다갔다 하고
迎風帶影來	바람을 환영하며 버들가지 그림자 또 돌아오네
疏黃一鳥弄	드문드문 누르스름한 색깔 속에서 한 마리 새는 울고
半翠几眉開	연한 비취색에서 흡사 보기좋은 눈썹과 같은 이파리가 자라고 있네
縈雪臨春岸	눈에 에워쌓여 봄 언덕에 기대고
參差間早梅	울망줄망한 사이에 이른 매화 뿔구나.

수양버들을 읊은 시이다. 수양제 제방이 있는 못 주위에 있는 수양 버들이다. 흔들리는게 마치 파도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눈썹 같기도 하다. 세월 따라 시간의 흐름 따라 변화하는 수양버들을 자세히 관찰하여 읊은 시이다.

⑦ 動物部: 動物, 禽獸, 鳥類, 蟲魚등을 읊었다. 태종시에서는 〈詠飲馬〉, 〈賦得早雁出雲鳴〉, 〈賦得弱柳鳴秋蟬〉 등 3수가 있다.

30) 수양제가 제의 도랑을 개통했는데 도랑을 따라 제방을 만들고 제방 주변에 버드나무를 심었다. 그래서 隋堤라고 했다.

〈咏飲馬〉

駿骨飲長涇³¹⁾ 골격이 건장한 준마가 길고 긴 涇水에서 물을 마시네
 奔流洒絡繹 세차게 흐르는 물속에서 뿌리니 말고삐 달린 술이 빛나 광채가 나
 네
 細紋連噴聚 물가에서 물을 마실때 수면위로 분사되어 나오는 작은 파도
 亂荇繞蹄縈 물속을 걸을 때는 어수선한 행채풀이 말굽주변을 둘러싸고 있네
 水光鞍上側 물의 광채는 말 안장 주변에서 반짝이고
 馬影溜中橫 준마의 그림자 물의 파도 중에 왔다갔다 하네
 翻似天池里 바다에서 뛰어오르는 듯
 騰波龍种生³²⁾ 솟구치는 물보라 속에서 神龍이 태어났구나

이 시는 말에게 물을 먹이는 여러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마지막 “천지 속에서 뛰어오르는 듯 솟구치는 물보라 속에서 용종이 태어났네”라고 마무리 지었다. 흡사 천마가 창공을 달리는 듯 신묘하기 비할 데 없다. 말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과 말을 감상해 본 풍부한 경험이 없다면 어찌 이처럼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겠는가?

⑧ 其他는 불, 향, 연기, 촛불, 재등을 읊은 것이다. 태종시는 〈詠燭二首〉 2수가 있다.

〈咏燭二首〉

焰听風來動 바람소리 듣고 촛불 갈라지네
 花開不待春 봄이 오는것 기다리지 않아도 촛불의 불꽃 막 피었네
 鎮下千行泪 천 갈래 눈물방울 떨어지는데
 非是爲思人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은 아니네

31) 水名이다. 甘肅平涼에서 근원하여 동남으로 흘러 陝西 高陵에 이르러 渭河로 들어간다.
 32) 《魏書·吐谷渾傳》：“青海周回千餘里，海內有小山每冬冰合后，以良牝馬置此山，至來春收之，馬皆有孕，所生得駒，號爲龍種，必多駿異.”， 庾信《春賦》：“馬是天池之龍種”

九龍蟠焰動³³⁾ 불꽃은 아홉 마리 용이 쟁반위에서 춤추는 듯하고
 四照逐花生³⁴⁾ 빛은 사방에서 아름다운 꽃 위에 화려하게 비취주네
 卽此流高殿 촛불은 대전을 비추는데
 堪持待月明 달을 대신해 밝게 비추는구나

2) 표현방식

영물시는 시작의 대상이 되는 사물을 어떻게 읊었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첫 째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것으로 사물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사실적인 묘사방식이다. 이를 形似로 표현한다.

六朝시기의 영물시는 대체로 이 유형에 속한다. 太宗의 시 또한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둘째는 객관적인 사물에 시인의 생각을 담아내는 것이다. 즉, 託物言情 혹은 託物言志로 표현하는데 ‘神似’라는 용어를 쓸 수 있겠다. 사물을 읊으면서 시인의 감흥을 표현하며 작가의 이상을 기탁하는 것이다. 영물시는 당대에 이르러 더욱 공교해지면서 寄興, 託情을 하여 더욱 발달하게 되는데 태종의 영물시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영물 대상으로서의 物이 작품 내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으며 시인은 그 物에 무엇을 기탁하였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形似적 영물

《文心雕龍》物色篇 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근대이래로 문장은 사실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풍경속에서 사물의 형상을 살펴내고 초목 속에서 사물의 형태를 고찰하였다. 시인들이 읊어낸 뜻은 오로지 심원하기만 하였고 사물을 묘사한 시는 오로지 공교함을 추구하여 마치 인주로 도장을 찍어 놓은 듯 하였다.³⁵⁾”

33) 아홉마리 용이다. 옛날 사람들은 이 형상으로 수식하는게 많았다. 庾信 〈燈賦〉：“九龍解暝，三箭行樓”

34) 《山海經·南山經》：“招搖之山有木焉，其狀如穀而黑理，其華四照：

시대적 풍조가 정교한 것을 좋아하여 形似 體物을 지극히 상세하게 묘사하였음을 서술하고 있다. 태종의 영물시에서 이러한 묘사를 찾아보자.

〈咏弓〉

上弦明月半	화살을 활시위에 매니 明月의 반쪽이고
激箭流星遠	빠르게 날아가는 화살은 유성처럼 멀어지네
落雁帶書 ³⁶⁾	활을 당겨 기러기를 떨어뜨리니 서신이 매여있어 놀라고
啼猿映枝轉	슬프게 우는 원숭이는 나뭇가지 위에서 놀라 구르는구나

있는 그대로 묘사했다. 당긴 화살 같은 초생달, 유성처럼 빠르게 날아가는 화살, 마치 화살 맞은 듯 두려워 벌벌 떠는 원숭이 등 생생하게 그렸다.

〈咏雨〉

罩云飄遠岫遠	검은 구름이 멀리있는 산봉우리를 뒤덮고
噴雨泛長河	폭우에 큰 강이 잠겼네
低飛昏峴腹	구름이 낮게 날아가고 산봉우리 깊은 곳은 어둡고
斜足洒岩阿	비는 천천히 산기슭 암석을 때리고 있네
沄叢珠締叶	빗방울은 빠르게 나뭇잎에서 미끄러 떨어지는데 마치 둥근 옥구슬 처럼 나뭇잎에 붙어 있기도 하고
起溜鏡圖波	빗물은 흐르는 물이 되며 수면위에 점점이 이는 물보라 마치 거울 속 예쁜 그림이 그려진 듯하네
濛柳添絲密	버들가지는 보슬보슬 내리는 가랑비 처럼 조밀조밀 가는 가지 생겼고
含吹織空羅	마치 공중에서 한 폭의 비단을 짜 놓은 것 같구나.

35) “自近代以來，文貴形似，窺清風景之上，鑿貌草木之中，吟詠所發志惟深遠，體物爲妙功在密附，故巧言切狀，如印之印泥，不加雕刻，而曲寫毫芥” 《文心雕龍》卷10，物色篇。

36) 蘇武가 흉노 때문에 구류를 살았다. 漢의 사신이 그를 구하고자 했는데 흉노는 蘇武가 죽었다고 속였다. 漢 사신이 天子에게 상림원에서 사냥을 해서 기러기를 잡았는데 기러기 발에 소무가 못 가운데 살아 있다는 편지가 묶여 있었다고 했다. 흉노는 그것을 믿고 소무는 살아날 수 있었다. 《漢書·蘇建傳》 부록 〈蘇武傳〉에 보임.

비를 읊은 시인데 가랑비도 아닌 폭우를 읊었다. 큰 강이 잠길 정도의 비, 산 기슭 암석을 때리는 비 속에서도 나뭇잎에 덩구는 옥구슬 같은 물방울, 수면위의 물보라, 비단을 짜는 듯한 수양버들 가지 등 세밀하면서도 아름답게 묘사하였다.

〈咏雪〉

浩野凝晨耀 새벽 새하얀 들관위에 빛이 가득하고
 裝輝帶夕暉 황혼무렵 흰 눈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붉은 섬들 또 석양으로 덮였
 네
 集條分樹玉 숲 속의 가지는 공중을 향해 손을 내 미는 것이 마치 옥으로 된 나
 뭇가지 같고
 拂浪影泉玗 가지는 물위의 파도를 스치고 그림자는 샘물속의 돌맹이 위로 떨
 어지네
 色酒妝台粉 햇빛은 단장한 누대위를 비치고
 花飄綺席衣 눈 꽃송이 아름다운 의자와 홑 옷 위로 떨어지네
 入扇縈窗匣³⁷⁾ 눈꽃송이는 버린 상자위에 휘날리고
 点素皎殘机 베틀위에 아직 다 짜지 않은 옷감위에도 떨어져 깨끗하게 해주네

눈을 읊은 시인데 들관위에 새 하얗게 내린 눈을 잘 묘사하고 있다. 눈 꽃송이 떨어지는데 버린 상자위에도 베틀위에 아직 다 짜지 않은 옷감위에도 깨끗하고 아름답게 내리는 눈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사물을 있는 그대로, 弓, 雨, 雪 등을 객관적이고도 사실적으로 수식을 보태지 않고 곡진하게 표현해 내었다. 이러한 形似적 표현이 태종의 영물시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2) 神似적 영물

唐代로 가면서 작가의 어떠한 이상을 기탁함과 동시에 사물에게 심미가치를 부여하여 더욱 성숙된 영물시로 발전하게 되는데 태종시 또한 육조시대를 이어받아

37) “入扇”二句는 班婕妤의 〈怨詩〉를 인용했다. “新裂齊紈素, 鮮潔如霜雪, 裁爲合歡扇, 閉閉似明月, ……乘捐篋笥中, 思情中道絕”

形似적 영물시가 많이 있으면서도 神似적 영물시 또한 존재하였다.

시인의 감정을 촉발시키는 外物, 景物을 통해 감정이나 사상을 기탁하여 표현하고 나아가 작가의 주관적 감정에다 상상이나 연상 작용을 거친 객관적인 물상을 결합시켜 예술적 형상을 이루는 神似的의 표현수법은 고대 시가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나아가 情景交融의 경지를 이끌어낸다. 영물시가 육조시대에 성행했을 때는 대부분 形似的의 표현으로 物을 있는 그대로 묘사했는데 태종의 시에서는 形似적 표현에서 진일보하여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春日望海〉

披襟眺滄海	옷깃을 풀어헤치고 나는 창해를 바라보네
凭軾玩春芳	수레 앞 턱 횡목에 기대어서 봄날 향기로움 음미하네
積流橫地紀	대지위에 흐르는 물 자유롭게 흘러가고
疏派引天潢	멀리서부터 흘러오던 긴 강줄기는 은하수를 끌어 흘러왔나
仙氣凝三嶼 ³⁸⁾	신선의 기운 바다가운데 있는 세 개의 神山위에 모아져있고
和風扇八荒 ³⁹⁾	바람은 팔방의 머나먼 곳에서 부네
拂潮雲布色	바람에 조수가 흔들리고 바닷구름 모아졌다 흩어졌다
穿浪日舒光	물보라를 입고서 붉은 해 사방에 밝게 비취네
照岸花分彩	밝은 태양아래 바다 언덕위의 선홍색의 신선한 꽃 색깔이 오색 찬란하네
迷雲雁斷行	바닷구름 때문에 헛갈려 어떤 기러기는 무리에서 떨어져 날아가네
懷卑運深廣	큰 바다 지세가 낮지만 그 속은 깊고 넓지
持滿守靈長	큰 바다 가득 차 있지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형세네
有形非易測	모습은 있는데 사람들은 추측하기 어려워
無源詎可量	큰 바다 발원지 어디인지 알 수 없으니 어찌 측량할 수 있겠는가
洪濤經變野	큰 파도 지나가면 창해는 들판으로 변하여
翠島屢成桑	수 많은 섬들이 여러차례 뽕나무 밭으로 변했었지
之罘思漢帝 ⁴⁰⁾	之罘山위에 서서 나는 한무제를 생각하고
碣石想秦皇 ⁴¹⁾	碣石山위에 서서 진시황을 생각하네

38) 전설중에 나오는 東海의 3神山이다. 蓬萊, 方丈, 瀛洲를 기르킨다. 《史記 封禪書》에 보인다.

39) 八極이다. 《說苑》, 辨物) : “八荒안에 四海가 있고 천자는 中州에 있으면서 八荒을 통제할 뿐이다.

40) 之罘山으로 산동의 煙臺市에 있다. 《漢書, 武帝紀》: 太始三年2월에 “幸琅玕, 禮日成山, 登之罘, 浮大海”

霓裳非本意 무지개 옷을 입고 신선이 되었으니 결코 내가 필요한 것 생각해서
 는 안 되고
 端拱且圖王 오직 단정히 손모아 좋은 황제 될 생각만 할 뿐

봄날 바다를 바라보며 읊은 시이다. 주제는 창해이다. 멀리서부터 흐르는 강 줄기를 보며 바닷 속의 모습, 파도, 바다에 비치는 태양등 바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도 자기의 생각을 썼다. 한 무제가 올라갔던 산동의 지부산 위에서 그를 생각하고 진시황이 순행하며 기념 조각해 놓은 갈석산에 올라 진시황을 생각하며 좋은 황제 꿈을 꾸는 생각을 시의 말미에 표현하였다. 이것은 形似적 표현에서 神似적 표현으로 발전한 모습이다.

〈芳蘭〉

春暉開紫苑 봄날 햇빛이 궁전 뜰에 가득 비치고
 淑景媚蘭場 아름다운 풍경 난초꽃들로 더욱 아름답구나
 映庭含淺色 서로서로 정원 뜰에 비추며 붉은 색 띠고 있네
 凝露滋浮光 이슬방울 머금고 있는데 마치 빛이 나부끼는 것 처럼 떠 있고
 日麗參差影 명랑한 햇빛아래 난꽃은 들쭉날쭉한 그림자 남기고
 岡傳輕重香 바람따라 흔들며 이리저리 진하고 열은 향기 날리네
 會須君子折 응당 군자에게 난꽃을 꺾어 몸에 차게 하면
 佩里作芬芳⁴²⁾ 품격이 향기로워 지겠지

향기로운 난초를 읊은 시이다. 따사로운 봄날 이슬방울 머금고 있는 난초, 맑은 햇빛아래 아름답게 핀 꽃, 그리고 향기 있는 그대로를 아름답게 묘사하였다. 그러면서도 난초가 묘사하는 바른 정절, 멀리 가는 향기처럼 품격을 지킬 것을 스스로 다짐하는 마음을 의탁하였다.

〈賦得臨池竹〉

41) 礪石山이다. 원래는 지금의 河北 樂亭縣경내에 있는데 후에 침수하여 바다로 들어갔다. 秦始皇 32년에 동쪽으로 순행하다 이 산에 올라 기념으로 돌에 功을 새겨 놓았다. 《史記, 秦始皇本紀》에 보인다.

42) “會須二句”: 《孔子家語, 在厄》: “芝蘭生于深林, 不以無人而不芳; 君子修道立德, 不爲窮困而改節”

貞條障曲砌 곧고 깨끗한 가지가 굽은 담장에게 막혔고
 翠葉貫寒霜 푸른 잎사귀는 차가운 서리를 뚫고 나왔네
 拂牖分龍影 창문에 스친 대나무 그림자 흔들흔들 거리고
 臨池待鳳翔 연못 굽어보며 봉황이 내려오길 기다리네

연못가의 대나무를 읊은 시이다. 곧고 깨끗한 가지가 차가운 서리를 무릎쓰고 나오고, 창문에 스친 대나무 그림자 흔들거리는 모습도 그대로 꾸밈없이 표현하였다. 그런데 末句에 연못에 서 있는 대나무를 연못을 굽어보며 봉황이 내려오길 기다린다고 표현하였다. 봉황은 예로부터 비교와 암시의 보고이다. 상상의 신화적인 생물로 고귀한 새이다. 중국역사에서 봉황의 출현은 평화로운 통치를 영광스럽게 표현하고 성공적인 지배자의 귀를 즐겁게 해 주려고 등장시킨다. 봉황은 대나무가 아니면 먹지 않는다고 하니⁴³⁾ 절개있는 대나무가 차가운 서리를 무릎쓰고 나와 고귀하게 자라고 있는 것이다. 태종이 미래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며 절개를 지키고 있는 자신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4. 太宗詠物詩의 風格

風格형성의 근본적인 요인은 타고난 才性和 기질에 있다. 그러나 후천적인 학문과 습성은 풍격을 변화 조절하는데 결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⁴⁴⁾ 당 태종은 북조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수 나라 말기, 남방에서 자랐다. 그는 자연스럽게 南北 시풍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⁴⁵⁾ 역사적으로도 당나라 초기는 정치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남북의 시풍이 융합되었던 시기였다.

본 고에서는 태종의 영물시 풍격을 淸綺한 풍격⁴⁶⁾과 豪放한 풍격⁴⁷⁾으로 나누어

43) 《莊子, 外物, 秋水》: 夫鵷雛, 發於南海, 而飛於北海, 非梧桐不止, 非練實不食, 非醴泉不飲.
 44) 車柱環 《중국시론》 서울대출판부, 2003, 42쪽 참조.
 45) “唐太宗生于北國、長于隋末 且愛好文學, 自然易受南北詩風的熏陶. 氣度雄豪類近北詩剛勁之風, 貴族世家又性喜南詩柔媚之詠” 趙克堯 許道助 著《唐太宗傳》 人民出版社, 405쪽.
 46) “淸綺”는 청아하고 아름답다는 뜻이다. 《北史·文苑傳序》에 “江左宮商發越, 貴於淸綺”라는 말이 있다.
 47) “豪放”은 豪氣있고 분방함을 뜻하는 말이다. 司空圖는 《二十四詩品》에서 풍격을 설정하는데

보았다.

(1) 淸綺

이 풍격은 육조시대 화려한 문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화려함을 숭상하는 남조의 문풍이 그에게서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咏風〉

蕭條起關塞	바람이 관새에 불어와
搖颺下蓬瀛	하늘하늘 훑날리며 선경에 도착했네
拂林花亂彩	숲에도 꽃 무더기에도 스쳐 오색찬란하고
響谷鳥分聲	새는 기뻐하며 노래하니 계곡이 울리는구나
披雲羅影散	아름다운 비단옷을 걸치니 그림자 대지위에 가득하고
泛水織文生	미풍은 물위에 불어와 부드럽고 온화한 물결무늬 짜 놓았네
勞歌大風曲	제왕이 大風歌를 부르니
威加四海淸	우리나라에 위엄이 더 해지고 온 세계가 편안하네

바람을 읊은 시인데 표현이 하늘하늘 훑날리는 광경, 바람으로 인해 꽃이 더욱 오색찬란하게 되고, 새의 노래소리는 계곡을 울리고, 아름다운 비단옷, 물결위에 부는 바람은 등, 아름다운 격조가 느껴진다.

〈遠山澄碧霧〉

殘云收翠嶺	비취빛 산 꼭대기에 남은 구름 사라지고
夕霧結長空	저녁무렵 안개 긴 허공에 모여있네
帶岫凝全碧	안개는 이어져있는 산 계곡을 덮고 한 줄기 짙은 녹색 띠를 이루었네
障霞隱半紅	붉은해를 막고있는 노을은 구름때 속에서 뚫고 나오네
仿佛分初月	어느 땐 막 떠오르는 밝은 달 막아버리고
飄飄度曉風	어느 땐 동 틀녘의 바람따라 떠 다니기도 하네

그 중 하나의 풍격이 豪放이다. 결국 氣象이 크고 사소한 절도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안개를 읊은 시인데 비취빛 산 꼭대기, 산 계곡에 퍼져있는 저녁안개를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咏桃〉

向日分千笑 태양을 바라보며 천만송이 꽃이 미소짓고
迎風共一香 봄바람 맛이하니 똑 같은 향기네

〈賦得櫻桃〉

華林滿芳景 화려한 숲 속 향기질은 아름다운 경치
洛陽遍陽春 낙양성에는 봄의 기운 충만하네
朱顏含遠日 홍안은 멀리있는 아침 태양 머금고
翠色影長津 강물 흘러가는 길고 긴 나무터에 비취빛 가득 펼쳐져 있네

〈咏桃〉에서 복숭아꽃과 향기, 〈賦得櫻桃〉에서 앵두꽃이 만발한 모습이 아름답기 그지없다. 모두 화미한 남방의 풍격이면서 육조시대의 시풍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다.

(2) 豪放

당태종은 불후의 업적을 세운 황제이다, 또한 그는 북방의 기개를 가지고 태어난 자이다. 당태종은 천부의 자질이 웅대하고 장려해 외물을 빌려 감정을 묘사하는데 탁월했다⁴⁸⁾고 한다. 시대적으로도 초당 정국은 안정되고 경제번영, 국력강대, 사인들의 정신 상태는 명랑한 정조가 있다. 영물시 에서도 그의 활달한 정신의 기백, 사회생활의 풍부한 체험과 마음 가득한 정치적인 걱정이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있다.

중국시가에서 唐詩가 唐代에 황금시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초당 때 이러한 발판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처럼 호방한 시풍은 당시를 더욱

48) “天才宏麗, 興託玄遠” 趙克堯 許道勳 著《唐太宗傳》 人民出版社, 408쪽.

활기있고 대범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春日望海〉

披襟眺滄海	옷깃을 풀어헤치고 나는 장해를 바라보네
凭軾玩春芳	수레 앞 턱 횡목에 기대어서 봄날 향기로움 음미하네
積流橫地紀	대지위에 흐르는 물 자유롭게 흘러가고
疏派引天潢	멀리서부터 흘러오던 긴 강줄기는 은하수를 끌어 흘러왔나
仙氣凝三嶠	신선의 기운 바다가운데 있는 세 개의 神山위에 모아져있고
和風扇八荒	바람은 팔방의 머나먼 곳에서 부네

.
. .
. .
. .
. .

之罘思漢帝	之罘山위에 서서 나는 한무제를 생각하고
碣石想秦皇	碣石山위에 서서 진시황을 생각하네
霓裳非本意	무지개 옷을 입고 신선이 되었으니 결코 내가 필요한 것 생각해서 는 안되고
端拱且圖王	오직 단정히 손모아 좋은 황제 될 생각만 할 뿐이네

봄날 새벽의 광대한 '蒼海'와 장려한 일출이 호방하게 펼쳐져 있다. 地紀, 天潢, 三嶠, 八荒은 중국산하의 넓고 끝없는 호방한 기세를 표현하기에 충분하다.

〈望終南山〉

重巒俯渭水	뽀족뽀족 죽 이어진 산봉우리에서 위수를 내려다보니
碧嶂插遙天	푸른색 산봉우리는 창공을 가리키네
出紅扶嶺日	산봉우리위의 아름다운 꽃은 붉은 해를 맞이하니
入翠貯岩烟	산 계곡에 쌓여 있는 구름 연기는 더욱 푸르름 더하네

산 맨 꼭대기에서 위로는 드넓은 창공이 보이고, 아래로는 끝없는 강물, 산 위의 아름다운 붉은 태양을 맞이하는 등 웅대하고 광활한 모습을 그려냈다.

〈咏雨〉

罩云飄遠岫 검은 구름이 멀리 있는 산 봉우리를 뒤덮었고
 噴雨泛長河 폭우에 큰 강이 잠겼네

사소한 비를 읊는데도 크게 그려놓았다. 산봉우리를 뒤덮은 검은 구름, 큰 강이 잠길 정도의 폭우, 이러한 풍격은 당 태종의 웅대하고 장려한 자질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琵琶〉

摧藏千里態 서글픈 생각 천리의 기분
 掩抑几重悲 우울하고 서글픈 끝없는 비통함
 促節繁紅袖 빠른 음절이 붉은 소매 속에서 나타나고
 清音滿翠帷 맑은 낭랑한 음절 질푸른 휘장에 가득하네
 駛彈風響急 빨리 연주되는게 마치 광풍이 일어나는 듯 하고
 緩曲鉞聲遲 음악소리 천천히 흐를때 마치 금팔지 느릿느릿 움직여 돌리는 듯 하네

비파소리를 들으니 서글프고 비통한 생각이 천리까지 가는 기분, 빠른 연주를 광풍이 불어닥치는 듯 하다고 한 표현은 기상이 매우 크고 호방한 것을 느끼게 해 준다.

〈咏燭二首〉第二首

九龍蟠焰動 불 꽃은 아홉 마리 용이 쟁반 위에서 춤추는 듯하고
 四照逐花生 빛은 사방에서 아름다운 꽃 위에 화려하게 비취주네
 卽此流高殿 촛불은 대전을 비추고
 堪持待月明 달을 대신해 밝게 비추는구나

마치 하늘에 하나밖에 없는 달 하나가 온 세상을 밝혀 주듯이 미미한 촛불이

사방의 아름다운 꽃을 비추고, 크고 넓은 궁전 까지도 비추어 준다. 이 얼마나 광대한 표현인가. 시에 나타난 기상이 장대하고 과장을 느끼게 할 정도로 크게 그려져 있다.

〈探得李〉

盤根直盈渚	오얏나무 얽히고 설켜 물가 모래섬에 가득하고
交干橫倚天	나무가지 갈라져 하늘에서 가로로 서로 뒤섞여 있네
舒華光四海	햇빛은 널리 사해를 두루두루 비쳐주고
卷葉蔭三川	오얏나무 잎은 펼쳐서 경수, 위수, 낙수를 감싸주고 있네

사해를 두루 비추고 있는 햇빛, 오얏나무 잎이 경수, 위수, 낙수를 감싸주는 표현 또한 웅혼하고 호방하게 그려져 있다.

〈咏飲馬〉

翻似天池里	천지속에서 뛰어오르듯
騰波龍种生	솟구치는 물보라 속에서 용종이 태어났네

물을 먹는 말의 모습이 천지 속에서 뛰어 오르는 듯 하고 솟구치는 물보라등 흡사 천마가 창공을 달리는 듯 신묘하기 비할 데 없다. 말의 움직임이 호기있고 분방함을 느끼게 해 준다.

이처럼 태종은 영물시를 통해 호방하며 웅건하고 힘이 넘치는 표정과 자태가 살아 움직이는 듯 한 사물을 그려내었다. 이러한 풍격은 앞에서 말하였듯이 북쪽에서 태어나고 전쟁터에서 자란 당 태종의 환경과 어려서부터 지모가 출중하고 용감무쌍한 성격의 자질⁴⁹⁾, 초당의 사회적 안정과 번영 등이 한데 어우러져 그러한 풍격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한다.

5. 結言

18세부터 전쟁을 시작해 중국을 통일 시키고 貞觀之治의 치세로 중국 역사상 부강한 왕조로서 사회, 경제, 문화를 발전시킨 당 태종은 역사에서는 긍정적인 평

49) “生于北地，長于戎馬的唐太宗，從小就形成了英武的性格” 《唐太宗傳》 위의 책 395쪽.

가를 받았다. 그런데 문학적으로는 당나라 초기 인물 중 가장 많은 시작을 남겼음에도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맹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사람의 시를 읊어보고 그 사람의 글을 읽어보는데도 그 사람됨을 모를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여 그 사람의 世代를 논하게 되고 이것이 옛 사람과 사귀는 길이다”. 50)

지금까지 태종에 대한 문학자들의 평가를 확인하기 위해, 또 그의 모습과 그의 생각을 제대로 알기 위해 태종시를 살펴보았다.

태종은 87수의 시를 남겼다. 그 대부분이 物을 읊은 詠物詩이다. 이 영물시를 분류해 보니 天象類의 物을 읊은 시는 11수이고, 歲時類의 物은 18수, 地物類는 7수, 建物類2수, 器物類 5수, 植物類10수, 動物類2수, 기타2수가 있었다.

表現方式으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이고도 사실적인 묘사 방식인 形似的 영물로 표현한 영물시가 많았다. 이는 육조시대 영향을 받아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었다고 본다. 그러나 形似的 영물표현 외에도 託物言志의 표현 즉, 시인이 자신의 생각을 物을 빌려 기탁하는 神似的 표현도 많았다. 이는 초당시기를 살았던 태종이 육조 풍에서 벗어난 진 일보한 모습이며 당시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태종 영물시의 풍격으로는 남방적인 온화하고 맑고 화려하고 부드러운 시풍이 있기도 하고, 북방의 강하고 힘이 있고 명랑하고 웅대한 시풍도 있었다. 이는 태종 자신의 기질과 자라난 환경적 요소, 시대적인 요인, 초당 사회적인 요소가 다 어우러져 이룩된 시풍이라고 볼 수 있다.

아무튼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문학사에서 “당 태종은 궁체시를 지은 자이다”⁵¹⁾라고 일축해 버렸는데, 사실 태종시 87수에서는 궁체시라고 단정 지을 만한 시는 불과 몇 수에 지나지 않는다.

50) “頌其詩, 讀其書, 不知其人 可乎. 是以論其世也是尙友也” 《孟子》萬章篇下

51) 많은 《중국문학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만 예로 든다. 원행패저, 김해명역 《중국문학개론》 연대출판부 2010, 120쪽 “唐太宗은 당시의 문학 풍도를 쇄신시키지 못하고 말았으며, 그 자신도 적지 않은 宮體詩를 남겨 梁、陳의 시풍이 그의 궁정에서 계속 주요한 위치를 차지 하게 되었다.”

필자는 태종을 '중국시의 황금시대를 연 개척자'라고 평가하고 싶다. 그는 육조 시대 풍을 벗어나려고 노력했고, 새로운 시풍은 열었던 唐代 氣象을 보여준 초당의 시인이며 황제였다.

《參考文獻》

- 《全唐詩》增訂註釋 陳貽焮 主編 第一冊 文化藝術出版社 2001.
清俞琰編《詠物詩選》中國成都古籍書店 1984.
何文煥 輯 《歷代詩話, 中國 中華書局》1982.
丁福保編《清詩話》臺灣 藝文印書館.
唐 歐陽詢 撰 《藝文類聚》中國上海古籍 1985.
洪順隆 《六朝詩論》臺灣 文津出版社 1985.
宋,計有功 撰 《唐詩紀事》木鐸出版社 1982.
趙克堯 許道勛 著《唐太宗傳》人民出版社 2005.
范祖禹撰 《唐鑒》 中華書局 2008.
李斌成主編 《唐代文化》上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7.
車柱環著 《중국시론》 서울대출판부 2003.
小尾郊一 著 尹壽榮譯 《中國文學속의 自然觀》강원대학교출판부 1988.
金萬源 〈中國詠物詩試論: 六朝를 중심으로〉 《中國文學》 제16집 1988.
林承坏 〈詠物詩의 流變〉 《中國文學研究》 제23집, 2001.
蘭天 〈試論唐代詠物詩的藝術成就〉 《湖南大學社會科學學報》, 第9卷, 第1期, 1995.
于之鵬 〈中國古代詠物詩概念界說〉 《濟南大學學報》, 第14卷, 第2期, 2004.
陳新璋 〈唐宋詠物詩略論〉 《華南師範大學學報》, 第4期, 1985.
金載旭 〈牧隱李穡의 詠物詩研究〉 高代博士論文, 2009.
김준옥 〈詠物詩의 性格考察〉 《한국언어문학》 제29집 1991.

《中文提要》

唐太宗李世民是 中国历史上 一位十分杰出的皇帝, 对于他的文治武功的赞颂, 史

不绝书, 而对他的诗歌创作, 却很少有人重视, 其实, 他也是一位颇具特色的诗人。

《全唐诗》收其诗作八十七首, 仅从数量而言, 在此前的开国之君中, 他也是最多的一位了。

唐太宗的时代, 距建安时期已四百多年, 在这麼漫长的岁月中, 中国诗歌走的是一条下坡路。到了南朝梁陈时期, 所谓建安风骨早已消失殆尽。在梁简文帝萧纲的唱导下, 内容淫艳、格调卑弱的宫体诗统治了诗坛。

生活在这样一种诗的氛围之中的唐太宗。自然也不能不受影响。据说他也曾写过宫体诗。但现存的作品之中, 却这些诗的数量并不多。

太宗的诗歌中咏物诗数量不少。

这里翻译太宗咏物诗五十八首, 并进一步分析太宗咏物诗表现方式、风格。

表现方式为二部分; 一、形似的表现, 二、神似的表现

风格为二部分; 一、清绮, 二、豪放

受到两方面的影响: 他的咏物诗明显地南朝绮丽文风和的, 北方的豪放刚健文风。初唐政局安定, 经济繁荣, 国力强大, 反映到士人的精神状态上, 便是一种明朗的情调, 唐太宗这位建立了不朽功业的一代英主, 他的胸襟与气概必然要反映到诗歌中去, 就出现了一种雄浑、豪放格调。

这种风格, 表现出唐王朝开国初的昌盛景象, 为唐诗的健康发展起了推波助澜的作用。

唐太宗对唐诗的繁荣、对唐诗的风格积极影响、作用以及他在唐代诗歌史上的地位是不容忽视的。不能因为其宫体诗而全面地否定或片面地做出结论, 我们必须给予客观公正的承认与评价。

關鍵詞 : 太宗 咏物诗 形似 神似 清绮 豪放

이 논문은 2012년 5월 15일에 접수되어 2012년 6월 1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2년 6월 20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